

# 東友

【社是】

민족의 표현기관으로 자임함  
민주주의를 지지함  
문화주의를 제창함

2019년 1월 8일 화요일  
제229호

발행인  
김재호

편집위원

- 권해정(동아PDS)
- 김민지(동아E&D)
- 김석호(마케팅본부)
- 김영환(AD본부)
- 김종석(채널A 보도본부)
- 구희연(출판국)
- 남형주(재경국)
- 박형순(동아애드넷)
- 빈정훈(동아MD)
- 양형모(스포츠동아)
- 유성열(편집국)
- 이정애(동아사이언스)
- 이종원(문화사업본부)
- 정기성(동아닷컴)
- 정소림(경영지원국)
- 조현성(동아프린테크)
- 최한나(미래전략연구소)

(가나다순)

제작 : 경영총괄팀(구내 0939)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사장이 1월 2일 동아미디어센터 20층 CC큐브에서 열린 동아미디어그룹 신년 하례 및 시무식에서 신년사와 2019년 3대 경영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편집국 사진부 변영욱 기자

## “새 100년 생각하며, 워크 리디자인 시작을” (work re-design)

### 동아미디어그룹 2019년 신년 하례 및 시무식 개최 “동아 DNA, 개방적 협업을 경쟁력의 원천으로 만들자”

“새로운 100년을 생각하며 동아미디어그룹 전 분야에 걸쳐 워크 리디자인(work re-design)을 시작합니다.”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사장은 2일 동아미디어센터 20층 CC큐브에서 열린 동아미디어그룹 기해년(己亥年) 신년 하례 및 시무식에서 “독자와 시청자들이 신문과 방송, 미디어 기업에 바라는 것들은 변했는데 우리는 예전 그대로가 아닌지 살펴보자”며 이같이 말했다.

#### 새로운 100년을 여는 ‘워크 리디자인(work re-design)’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사장은 2일 신년사에서 2019년을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게 출발점으로 봤다. 김 사장은 “1919년은 인촌 선생과 동아일보 창간에 뜻을 모은 분들이 오로지 민족을 위한 신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헌신한 시기”였다고 말했다. 이로부터 100년이 지난 2019년, 100년 전 그때처럼

앞으로의 100년을 생각하면서 전 분야에 걸쳐 우리 일을 다시 디자인하자고 제안했다. 김 사장은 “앞으로 살아갈 100년에도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며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가려보자”고 강조했다.

뉴스와 콘텐츠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를 이끌어 내는 ‘터칭 콘텐츠(Touching Contents)’를 만드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도 주문했다. 그는 “모든 플랫폼에 각자 취향대로 흩어져 존재하는 대중 속 개개인과 소통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사장은 또 “나의 개성과 역량으로 동아미디어그룹의 브랜드 자산을 쌓는 ‘아이 브랜딩(I-Branding)’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짜뉴스와 자극적인 콘텐츠가 쏟아질수록 신뢰와 믿음의 동아 브랜드는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여기에 동아가족 각자의

개성과 매력이 묻어나고 생동감을 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함께 손잡고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동아 디엔에이(DNA)’를 강조하며 “개방적 협업을 경쟁력의 원천으로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동아DNA는 오랫동안 형성돼 온 핵심 가치이자 신념이어서 남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다”며 “이런 개방적 협업 능력을 차별화된 핵심 경쟁력으로 삼는 전략적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새로운 100년의 결의와 격려 넘친 자리

김 사장은 지난해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이뤄낸 성과에 대해 격려했다. 김 사장은 “동아일보는 6년 연속 흑자를 올렸고 ABC 협회 유료부수 2년 연속 2위를 차지했다”며 “‘새로 쓰는 우리예절 신예기(新禮記)’ 기획 시리즈는 우리 시대에 적합한 예법을 다시 생각할 기회를 줬다”고 평가했다. 또 “채널A도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한 단계 성장했다”며 “젊은 PD들의 열정으로 첫 번째 오리지널 드라마 ‘열두밤’을 세상에 선보였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민족의 내



2일 오전 동아미디어센터 1층 로비에 마련된 떡을 직원들이 가져가는 모습.

일을 생각하며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어 왔기에 동아 100년을 바라보게 됐다”고 격려했다.

이날 시무식은 동아미디어그룹 간부와 국·실·본부 별 대표 사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미국·일본·중국·파리·카이로 등 해외 특파원들과 지역주재 기자, 돼지띠 해 사원 등이 보낸 새해인사 영상메시지를 시청했다. 새해의 복을 나누는 떡은 이날 아침 동아미디어센터 1층 로비로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나눠졌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강경석

### 새로운 100년, 함께 만들어갑시다

기해년(己亥年) 새해, 동아미디어그룹이 100년 전 그때처럼 새로운 100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구성원 모두 자신의 일을 새롭게 생각해 지킬 것은 지키고 바꿀 것은 과감히 바꾸는 변화와 혁신의 주인공이 됩시다. 콘텐츠를 강하게 할 조직을 만들었고, 활력을 불어넣어줄 신입·경력 사원들도 입사했습니다. 새로운 100년, 설레는 축제를 함께 즐기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 東亞日報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1 동아일보사

## 2019년 동아미디어그룹의 3대 경영방침

새로운 100년을 향한 혁신이 시작됐다. 2019년 동아미디어그룹은 △워크 리디자인(work re-design) △뉴스와 콘텐츠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터칭 콘텐츠’와 ‘아이 브랜딩’(I-Branding) △개방적 협업으로 경쟁력 차별화 실현’을 3대 경영 방침으로 정했다.

#### ‘워크 리디자인’

‘워크 리디자인’은 새로운 100년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아미디어그룹 구성원들이 모두 공유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리디자인’은 바뀐 미디어 산업 환경과 독자·시청자의 요구에 맞춰 우리가 하는 일의 본질을 다시 정의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실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 범위는 일의 내용과 형식, 미디어그룹의 사명 등 모든 것을 아우른다. 다만 모든 관행을 기계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뀐 미



디어 환경에서 차별적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일의 우선순위와 일하는 방법을 전사적 차원에서 재점검해 보는 과정이다.

#### ‘터칭 콘텐츠’ ‘아이 브랜딩’

‘터칭 콘텐츠’는 단순히 콘텐츠를 생산해서 전달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콘텐츠

소비자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까지 고민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동아미디어그룹이 만드는 콘텐츠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콘텐츠의 질과 완성도는 물론 여러 미디어 플랫폼에 흩어져 존재하는 대중 속 개개인과 소통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 브랜딩(I-branding)은 기존의 동아 브랜드 토대 위에 구성원 각자의 개성과 매력을 더해 생동감을 더할 방법을 찾는 제안이다. 개인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려면 잠재력을 가진 개인을 발굴하고 이들의 역량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하는 지원전략과 조직문화를 갖춰야 한다.

#### ‘협업 DNA’ 경쟁력 차별화

개방적 협업은 동아 DNA에 담겨 있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협업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아 창의적인 수익가치 등 혁신 사례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때 협업의 대상은 내부 조직뿐 아니라 각 분야 최고 경쟁력을 갖춘 외부 조직을 아우른다. 조직 바깥으로도 눈길을 돌려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파트너들과 적극 협업을 시도해야 한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이현수

# “카운트다운”... 변화와 혁신 뒷받침할 새로운 조직들

- \*채널A 콘텐츠사업본부: 콘텐츠 수익가치 높여
- \*경영전실 1, 2 theC스쿼드: 콘텐츠를 다양한 플랫폼에서 새롭게 전달
- \*드라마센터 신설, AD본부는 파트제로 전문성 높여

‘새로운 100년’의 출발을 준비하고, 2019년 ‘3대 경영방침’을 뒷받침할 조직 개편이 단행됐다. 동아미디어그룹이 만들어 내는 콘텐츠 가치를 극대화하면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워크 리디자인(work re-design)’에 과감히 나서서 것이 핵심이다.

굴하는데 그치지 않고 플랫폼 기업, 해외 콘텐츠 제작사 및 투자사와 같은 회사 밖 파트너들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에 나설 계획이다.

전략기획본부는 기존의 프로그램제작팀과 채널에이 플래시팀을 폐지하고 기

획제작1팀과 기획제작2팀을 신설하며 제작역량을 강화했다. 신선한 포맷과 다양한 주제를 다룬 프로그램을 제작해 시청률과 수익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겠다는 구상이다.

### 3대 경영방침 뒷받침

다양한 플랫폼에 각자 취향대로 흠어져 존재하는 대중 속 개개인과 소통하는 ‘더칭 콘텐츠’를 만들고, 이 같은 콘텐츠를 여러 미디어 플랫폼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한 조직개편도 이뤄졌다.

경영전략실 내에는 ‘1theC 스쿼드’와 ‘2theC 스쿼드’가 신설됐다. 이들 신설

팀은 프로젝트 단위로 유연하게 멤버 구성을 조정하며 방식과 내용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콘텐츠 실험에 나선다. 이를 통해 뉴스와 콘텐츠가 독자와 시청자의 가슴을 뛰게 하고 신선함과 감동을 전하도록 창조적인 실험에 나설 계획이다.

또 보도본부는 편집부를 편집1부와 편집2부로 분리해 역량을 극대화했고, 경제부와 산업부를 경제산업부로 통합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채널A는 지난해 여행 로맨스 <열두밤>을 통해 6년 만에 재개한 드라마 제작을 본격화하기 위한 드라마센터를 신설했다. 예능, 교양 프로그램에 비해 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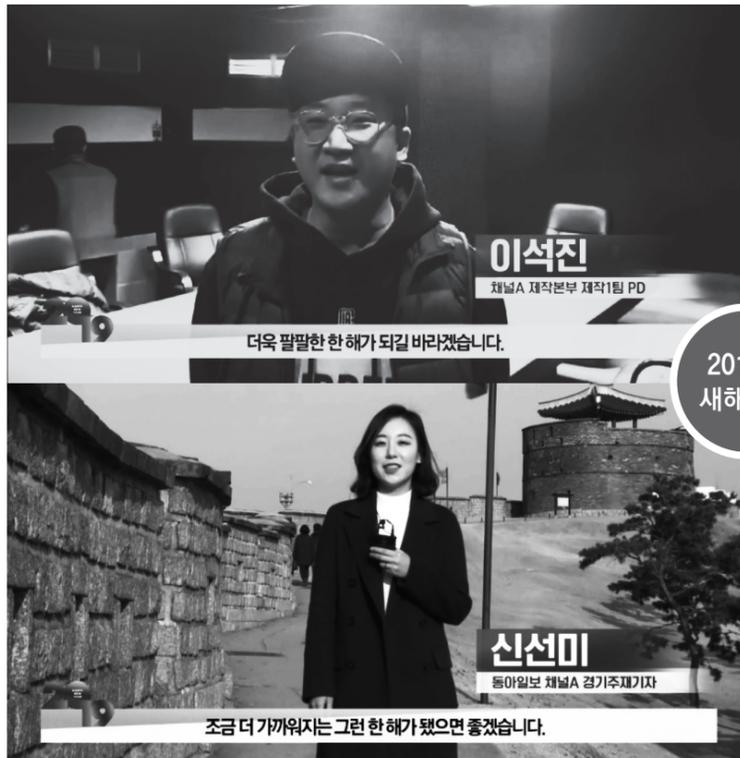
마의 제작 과정이 긴 호흡을 갖고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드라마센터는 PD, 작가, 스태프 등 드라마 제작 인력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채널A만의 드라마 제작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영지원본부는 효율적인 사육관리를 위해 시설관리팀을 신설했다.

한편 동아일보 AD본부는 파트제를 신설했다. ‘1본부 7팀 5파트제’로 운영된다. AD본부장 직속 디지털사업파트를 비롯해 △유통파트(총괄기획팀 산하) △중견중소기업파트(1팀 산하) △교육파트(2팀 산하) △부동산 파트(3팀 산하) 등으로 구성됐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이현수

### 콘텐츠 판매조직 강화

채널A는 콘텐츠 수익가치를 높이기 위해 콘텐츠사업본부를 신설했다. 경영전략실 내에 있던 콘텐츠사업팀과 콘텐츠 브랜드팀을 떼어내 관련 업무를 콘텐츠사업본부로 이관했다. 콘텐츠사업본부에는 플랫폼비즈니스팀, 콘텐츠세일즈팀, 미디어커머스팀을 신설했다. 플랫폼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채널A 콘텐츠를 판매하거나 콘텐츠와 연계된 상품을 개발해 마케팅 하는 조직이다. 국내 콘텐츠 판매는 물론 해외 콘텐츠 판매까지 담당한다. 또한 채널A가 가진 다양한 브랜드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콘텐츠 커머스’에 나서며 사용자와의 접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앞서 젊은 세대에게 공감을 이끌어 낸 <하트시그널> 브랜드를 뷰티 상품에 접목해 마스크팩 2종을 출시했고, 후드 티셔츠 맨투맨 티셔츠 등 ‘굿즈’를 판매해 브랜드 이미지에도 좋은 영향을 줬다.

편성본부에는 콘텐츠플러스팀이 신설된다. 콘텐츠플러스팀은 콘텐츠 구매, 기획, 제휴 협력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외부에서 양질의 콘텐츠를 적극 발



2019년 새해인사

2019년 동아미디어그룹 시무식에서 ‘황금돼지의 해’를 맞은 직원들의 새해 소망이 담긴 영상이 상영됐다.

## “더 좋고 더 멋진 동아의 청사진, 잘 그려볼게요”

### 뉴센테니얼본부, ‘싱크퓨처’ ‘크리에이티브랩’팀 확대개편

지난해 말 동아일보 뉴센테니얼 본부로 발령받은 한 후배가 물었다. “뉴센테니얼 본부가 뭐하는 곳인가요? 주변에 물어봐도 잘 모르겠대요.”

딱 1년 전 연말 이종훈 본부장과 뉴센테니얼본부로 발령받았을 때가 떠올랐다.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 9층 사무실

에 마주 앉은 둘은 황량한 사막 위에 선 기분이었다. 저 멀리 미래의 태양이 이글거리는 하는데, 뭔가 막중한 사명을 맡은 것 같긴 한데, 엄청난 부담감이 어깨에 얹어지던 이름, ‘새로운 100년, 뉴센테니얼!’

본부장과 나, 경제부 출신 박희창 기

자 셋이 모여 시작한 뉴센테니얼 본부가 2019년 기해년 새해 세 명의 젊은 새 가족을 맞아 배로 조직이 커졌다. 정치부에 있던 장원재 팀장, 산업1부 김성규, 산업2부 손가인 기자가 합세했다. 셋이 한 몸이던 본부는 두 개의 팀으로 어엿한 진영을 갖췄다. 장 팀장이 이끄는 싱크퓨처팀, 그리고 내가 맡은 크리에이티브랩팀이다.

지난 한 해 우리는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했다. 일하는 시간 내

내 ‘동아의 미래’를 생각한 일이다. 60여 명의 각 분야 전문가를 찾아가 만나 우리가 가야할 업(業)의 미래의 길을 들었다. 국내외 스타트업 행사와 여러 문화 현장에 참석하고, 경기 안산에 있는 동아일보 서고와 서울 북촌의 인촌 고택에 도 가보았다.

“새로운 동아의 미래 만들기 우리 모두의 일”

해야 할까. 그렇게 ‘동아의 뉴센테니얼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해 앞으로 역량을 모을 ‘일’을 규정할 결과가 ‘싱크퓨처’와 ‘크리에이티브랩’이다. 싱크퓨처팀은 그룹의 미래전략과 미션, 조직 등을 연구하게 된다.

경영전략실 근무와 도쿄특파원을 경험한 장 팀장과 경제, 산업부에서 IT와 4차 산업, 기업 등을 취재해온 박희창 김성규 기자가 함께 편다. 명품, 패션과 유통기업을 담당해온 손가인 기자가 합류한 크리에이티브랩팀은 DAMG의 내·외적 룩(Look)을 바꾸며 창조성을 불어넣는 작업을 하게 된다. 본부의 100주년 관련 사업과 이벤트를 외부에 알리고, 관리하는 책임도 맡는다.

회사와 업의 미래를 고민하는 일은 신기하게도 ‘일하는 마음’을 일깨워주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동아 구성원들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다.

일단 꽃피는 봄이 오면 동아미디어센터 건물이 화사한 웃을 입게 될 것이다. 본부의 첫 작품이다. 그 때 가족들과 함께 청계천 나들이 오셔서 예쁜 사진 많이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좋겠다. ‘더 좋은, 더 멋진 동아의 미래’를 만드는 건 결국 우리 모두의 일이다.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 가는데 동아미디어 그룹 조직원 모두 지혜를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확대 개편된 뉴센테니얼본부 구성원들. 왼쪽부터 김성규 기자, 장원재 차장, 김선미 차장, 손가인 기자, 이종훈 본부장, 박희창 차장.

동아미디어그룹 내 실력파들을 초빙해 만든 3개의 캐러밴그룹(브랜드, 콘텐츠, 디지털모바일) 15명과 15차례 회의를 하며 우리의 미래를 토론했다.

전 계열사의 젊은 피 65명으로 구성된 파일럿그룹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두 차례 심층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여기에서 콘텐츠의 디자인과 품질을 개선하고, 일하는 방식과 조직풍토를 바꾸자는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우리는 스스로 일의 성격을 규정하고 일을 만들어 나가야했다. 미래의 언론은 어떤 형태여야 할까, Z세대에게 신문은 어떤 의미일까. 2020년을 동아가 세계적 미디어기업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려면 무엇을 버리고, 계승하고, 시도

뉴센테니얼 본부 크리에이티브랩 팀장 김선미

# “재미와 감동”... 해녀도전-리얼리티 인턴체험까지

## 채널A 새해 신규프로 눈길... '인턴' 1월 중순 촬영 시작 체험 버라이어티 선보이고 드라마 '열두밤' 후속작 준비

채널A는 2019년 새해에도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리얼리티 예능의 영역을 넓혀 다양한 포맷의 예능 프로그램을 시도하는 것은 물론 채널A만의 로맨스 감성을 자극하는 드라마도 2019년 이어질 예정이다. 한층 세련되고 신선한 채널A만의 '터치 콘텐츠'로 새해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겠다는 전략이다.

〈하트시그널〉에서 로맨스 전문가들이 출연자들의 썸의 방향을 추리하면서 자연스럽게 빠져들었던 것처럼, 〈인턴〉도 어떤 변호사가 최종 선발될지 함께 추리하며 손에 땀을 쥐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1월 중순부터 첫 촬영이 시작된다.

66  
〈인턴〉은  
고군분투하는  
젊은이들의 성장 이야기  
99

### 리얼리티 예능 영역확장 〈인턴〉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신드롬을 일으켰던 〈하트시그널〉 제작진이 올해 상반기 방영을 목표로 직업 관련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인턴〉을 선보인다.

〈인턴〉은 8명의 로스쿨 재학생이 로펌에서 한 달간의 인턴 생활을 시작해 1등이 된 1명만이 채용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8인의 인턴은 로펌 소속 변호사들의 업무를 보조하며 송사에 관한 12개의 미션을 받는다. 이들 미션은 순발력, 끈기, 열정 등 변호사로서의 잠재력을 파악할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된다. 제작진은 인턴 출연자들과 그들의 멘토로 출연하는 로펌 변호사들 사이의 대화 내용과 감정선을 섬세하게 화면에 담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튜디오에서는 패널들이 매회 '로펌이 뽑은 인턴 1위와 2위'를 맞춰야 한다. 스튜디오 출연진이 로펌의 선택을 맞힐 때마다 한 개의 별을 획득한다. 일곱 개의 별이 모이면 채용 인원이 한 명 더 늘어나 최종 2위까지 채용이 가능해진다. 성공적 사회 진출을 꿈꾸며 고군분투하는 젊은이들의 희망과 열정, 두려움과 성장 이야기를 통해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다.

해녀부터 승무원까지 체험버라이어티 출격  
다양한 직업에 도전하는 '체험 버라이어티'도 선보인다. 국내 최초 수중 리얼 버라이어티인 〈무작정 풍덩하라 워터걸스〉(이하 〈워터걸스〉)가 지난해 12월 26일 첫 방송 됐다.

배우 김지영, 최여진, 김희정, 개그우먼 홍윤화, 걸그룹 우주소녀 다영 등 여성 연예인 5인방이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 유산에 등재된 '제주 해녀문화'를 체험하고 도전하는 내용이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출연자들의 좌충우돌 물질 도전기가 어우러져 큰 재미를 주고 있다.

프로그램 방송 전 공개된 티저 영상도 눈길을 끌었다. 출연자 각각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제주도 방언을 이용해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빠져들고 싶은 제주 바다의 아름다움을 부각시켰다.

〈워터걸스〉 5인방은 첫 만남부터 첫



최초 수중리얼 버라이어티 〈무작정 풍덩하라 워터걸스〉 출연자들이 해녀 복장을 하고 제주도 바다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물질 도전에 대한 자신감과 각오를 드러냈다. 홍윤화는 "어릴 적부터 해녀를 꿈꿔왔고 수영도 자신 있다"고 밝혔고, 다영은 "우리 이모가 현직 해녀로 제주도에서 활동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5인방 모두 "해녀의 역사를 알릴 수 있고, 미지의 세계를 경험할 좋은 기회"라고 입을 모았다.

1월 중에는 승무원을 꿈꿔왔던 연예인들이 기내 승무원들의 업무와 일상을 실제로 체험하는 승무원 도전 리얼 버

라이어티 프로그램 〈비행기 타고 가요〉도 론칭 한다. 배우 신현준, 개그맨 황제성, 2AM 정진운, 걸스데이 유라가 출연을 확정짓고 한창 촬영 중이다. 기내 승무원들의 각종 업무, 그리고 기착지에서 펼쳐지는 승무원들의 생활을 4명의 출연자들을 통해 낱알이 보여줄 예정이다. 출연자들은 기내 승무원이 되기 위한 면접 준비는 물론 승무원들의 필수 교육인 기내 안전교육, 서비스 교육 등을 항공사를 통해 받았다.



연예인들이 승무원에 도전하는 〈비행기 타고가요〉 포스터.

### 채널A 드라마 "2019년, 기대해주세요"

지난해 〈열두밤〉으로 6년 만에 재개한 채널A 드라마는 새해에도 후속을 기약하고 있다. 시청자들의 감성을 충족하게 적시며 마니아층을 만든 〈열두밤〉은 영상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착한 드라마'로 불린 〈열두밤〉의 인기는 국경도 넘었다. 1월 12일부터 매주 토요일 일본의 한류 전문 케이블 채널 DATV에서 방송되며 일본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전한다. 이와 함께 채널A는 드라마 극본공모에 나서며 적극적으로 우수한 작가 및 작품 발굴에 힘쓰고 있다. 첫 번째로 진행되는 미니시리즈 극본 공모에 총 상금 8000만 원이 걸렸다. 당선작은 오는 2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따뜻한 감성과 세련된 채널A만의 드라마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고 역량을 쏟아내겠다는 의지가 담긴 만큼 안팎의 기대가 높다.

이를 위해 드라마센터도 신설됐다. 드라마센터는 〈하트시그널〉 이후 구축된 '로맨스 채널A'의 연장선에서 드라마 브랜드를 구축해 나간다는 중장기 플랜을 세우고 있다.

드라마 주 시청층인 3049 여성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장르에 집중하고 〈열두밤〉을 자체제작하면서 쌓은 내부 기획, 제작 역량을 발휘해 웰메이드 로맨스 드라마를 계속해서 선보일 예정이다.

편성본부 콘텐츠커뮤니케이션팀 이기원  
편성본부 콘텐츠커뮤니케이션팀 노수아

## 예능대세 '도시어부'의 賞 냥는 솜씨

### KODFA 주관 '2018 it-Award' 본상 수상 이어 미디어미래연구소 '2018 Media Awards' 콘텐츠상 수상

채널A의 대표 예능 프로그램 〈도시어부〉가 다시 한 번 대세임을 입증했다. 한 해 최고의 미디어를 선정하는 '2018 미디어 어워즈(Media Awards)'와 디자인 산업에서 최고의 디자인을 선정하는 '2018 잇 어워드(it Award)'를 연이어 수상했다.

2018년 12월 11일 사단법인 미디어미래연구소가 개최한 '2018 Media Awards'에서 〈도시어부〉는 우수상을 수상했다. 올 해로 12회를 맞는 'Media Awards'는 한 해 동안 미디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콘텐츠를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도시어부〉는 유료방송 버라이어티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국내 최초 낚시 버라이어티로 참신성과 화제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미디어미래연구소 관계자는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낚시'를 소재로 하면서도 4%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도시어부〉는 낚시가 고리타분한 아빠들의 취미라는 편견을 깬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도시어부〉는 앞서 2018년 12월 10일 한국디자인기업협회(KODFA)가 주최한 제 7회 it-Award에서 디지털디자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공감할 자아내는 콘텐츠뿐 아니라 비주얼 디자인으로도 시



지난해 '미디어어워즈' 우수상을 받은 〈도시어부〉의 한 장면.

청자를 때려서킨 것이다. 소비재 혹은 인쇄물 시각 디자인들이 주로 상을 받는 '잇-어워드'에서 방송 콘텐츠가 대상을 받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이 나온다. 재미 있는 자막과 출연자 등의 캐릭터 디자인 등 〈도시어부〉의 비주얼브랜드도 인정받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고의 디자인 전문가들이 직접 선택해 시상하는 상이어서 의미가 더 크다.

앞서 올 8월에는 〈도시어부〉가 양성평등 대표 예능으로 꼽히기도 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도시어부〉속 남성 출연진들이 '요리는 여성의 일'이라는 그릇된 가사 분담 인식을 깬다고 평가했다. 콘텐츠사업본부 콘텐츠세일즈팀 손다혜

## DNA 프런티어 연수자-외부재단 연수후보자 확정

2019년 세계를 무대로 글로벌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할 5명의 연수자가 확정됐다.

동아일보와 채널A는 지난해 12월 26일 인재육성위원회를 열고 △해외연수(1년) 4명 △글로벌 크리에이터(단기연수) 1명 등 5명을 선발했다. 회사 자체 연수제도인 DNA 프런티어의 해외연수자로 동아일보 논설위원실 정임수 차장과 채널A 보도본부 황순욱 차장(뉴스이노베이션팀)이 선정됐다. 이들은 각각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신산업 육성 방안'과 '뉴미디어 플랫폼 시대, TV 뉴스의 새로운 전략'을 연구할 계획이다.

외부 언론재단의 연수 후보자도 결정했다. 채

널A 보도본부의 이남희 차장(정치부)은 '북미 정상회담이 남긴 과제 연구'로, 이상희 차장(경제산업부)은 '글로벌 OTT의 공습과 국내 방송사업자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각각 LG상남언론재단과 한국언론진흥재단 연수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다.

자유탐방 프로그램인 DNA 프런티어 글로벌 크리에이터 부문에는 채널A 전략기획본부 강태연 PD(기획제작2팀)가 선발됐다. 강 PD는 4월부터 한 달 간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콘텐츠 기업과 마켓을 탐방하며 '뉴미디어 시대의 브랜드 콘텐츠 전략'이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예정이다.

경영전략실 인재경영팀 남하나

## 채널A 사내바자회 수익금, 푸르메재단에 전액 기부

채널A는 지난해 11월 사내 바자회를 진행해 얻은 수익금을 푸르메재단에 전액 기부했다.

전진희 채널A 경영지원본부장은 지난해 12월 19일 푸르메재단 벡스어린이재활병원을 찾아 백경학 상임이사에게 469만1000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백 상임이사는 이 자리에서 채널A가 진행한 첫 '사랑의 나눔바자회'의 취지를 전해주고 "직원들

이 필요한 물품을 직접 기증하고 기부해준 거라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정말 감사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이틀간 광화문 동아미디언센터 19층에서 처음 열린 '사랑의 나눔 바자회'는 113명의 임직원들이 총 273점의 물품을 기부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경영지원본부 총무팀 김우준

# “빠르게 성장하고, 즐겁게 일하겠습니다”

## 동아일보-채널A 입사자

동아미디어그룹의 새로운 100년을 함께 열어가길 신입과 경력사원들이 대거 입사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동아미디어그룹 하반기 채용을 통해 신입 12명, 경력 12명 등 총 24명이 최종 선발됐다. 회사별로는 동아일보 14명, 채널A 10명이다. 신입과 경력을 동시에 모집한 이번 채용에는 지원자가 2000명 이상 몰렸다. 특히 미국, 중국 등에서 글로벌 역량을 쌓은 인재들이 많이 지원했다. 신입은 △동아일보 세일즈/마케팅/교육기획, 경영기획/회계 △채널A 콘텐츠비즈니스, 디지털미디어비즈니스 부문을 선발했다. 경력은 △동아일보 사내변호사, 편집국 및 DBR 기자 △채널A 콘텐츠 구매/분석, 콘텐츠비즈니스 부문을 선발했다. 신입 사원들은 2주간 입문·직무교육을 거쳐 1월 14일 각 부서에 배치된다. 9일 입사하는 경력 사원들은 21~23일 입문교육을 통해 동아미디어그룹 구성원으로서 각오를 다질 예정이다.

###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 이름 / 부서

- ① 출생연도 ② 최종 학교 / 직장 ③ 입사 후 포부 ④ 요즘 관심사



**이소명** / 동아일보  
편집국 편집지원팀 사원

- ① 1995년
- ② 배화여대 비즈니스영어
- ③ 회사와 동료로 유익하게 하면서 저도 유익하게 하는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주변 선배님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빠르게 성장하겠습니다.
- ④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일을 하기 전에 앞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일을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합니다.



**최고은** / 동아일보  
편집국 편집지원팀 사원

- ① 1999년
- ② 경기상업고
- ③ 모든 독자들이 읽기 편리한 신문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배님의 가르침을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행하겠습니다. 또한, 선배님과 동기들의 조언을 귀담아듣고, 언제나 배우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 ④ 요즘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취미로 배드민턴을 하셨기 때문에 더욱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여운석** / 동아일보  
출판국 사원

- ① 1989년
- ② 국민대 스포츠산업대학원 스포츠경영
- ③ 가장 쉬운 말일 수도 있지만 항상 일관된 자세로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여 즐길 수 있는 프로가 되겠습니다.
- ④ 스포츠 종목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관심이 많습니다. 기존에 취득한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 이외에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하려고 합니다.



**김영균** / 동아일보  
경영지원국 시설관리팀 사원

- ① 1993년
- ② 경신고
- ③ 조직에 도움이 되는, 조직이 필요로 하는 직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언제나 발전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 ④ 얼마 전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를 감명 깊게 보고 난 후, 매일 같이 퀸의 노래를 반복 재생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열 마디의 좋은 응원보단 노래 한 곡이 더 힘이 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연** /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사원

- ① 1996년
- ② 경희대 컨벤션경영학
- ③ '열정과 주인공성'을 갖춘 교육과 포럼 전문가로 성장하겠습니다. 참가자의 지식 획득과 새로운 커뮤니티 구성을 돕고, 동아일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 ④ 요즘 고양이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학교 근처의 카페에서 돌봐주는 길고양이를 살피고, 유튜브로 고양이 채널을 구독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지연** / 동아일보  
AD본부 광고지원팀 사원

- ① 2000년
- ② 서울여자상업고
- ③ 작은 일을 절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명감을 갖고 제 역할의 즐거움과 중요함을 계속 상기시키겠습니다.
- ④ 고전 소설을 참 좋아합니다. 제인 오스틴이 쓴 책을 즐겨 읽는데 최근에는 '오만과 편견'을 다시 정독하고 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로도 나와 있는데, 책을 먼저 읽어보고 영화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문훈복** / 동아일보  
마케팅본부 사원

- ① 1994년
- ② 세종대 신문방송학/관광경영학
- ③ 동아일보가 대한민국의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종합 콘텐츠 회사로 발돋움하는데 이바지하겠습니다. 또한 동아일보만의 킬링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싶습니다.
- ④ 유튜브와 대학교 학생회입니다. 입사하기 전까지 관심 있던 활동입니다. 전자는 점차 발전하고 있지만, 후자는 그 가치를 부정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영민** / 동아일보  
마케팅본부 지원팀 사원

- ① 1983년
- ② 동아에드넷
- ③ 2011년 9월 동아에드넷에서 시작해 100년 동아를 앞둔 지금, 동아가족으로 계속 쓰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안정적으로 예측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충실히 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는데 일조하겠습니다.
- ④ 6살, 4살 두 아이들과 체력소모는 최소면서 효과가 최대인 놀이방법이 있는지 육아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차석진** /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사원

- ① 1994년
- ② 한국외대 영어통번역학/경영학
- ③ 항상 겸손하게 배우며 도전하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회사에 꼭 필요한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④ 유년시절부터 개인적으로 악기연주를 꾸준히 즐겨왔습니다. 최근에는 트럼펫에 관심이 생겨 여가를 활용해 연주법을 열심히 배우고자 합니다.



**남진호** / 동아일보  
경영지원국 시설관리팀 사원

- ① 1991년
- ② 평생교육진흥원
- ③ 전반적인 업무 파악을 빠르게 하겠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다 같이 협업해서 원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꿈은 다채로운 엔지니어입니다.
- ④ 요즘은 클라이밍에 관심이 생겨 주말 하루씩 센터에 방문하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존 운동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취미생활로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박원우** / 동아일보  
경영지원국 시설관리팀 사원

- ① 1989년
- ② 경기대 기계시스템공학과
- ③ '빨간 머리 앤이 하는 말'이라는 책에 "인생의 실패란 없다. 성공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이지만, 성장의 관점에서 보면 성공인 실패도 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 ④ 사회인 야구와 축구를 즐겨합니다. 엔씨의 양익지 선수와 토트님의 손흥민 선수처럼 가장 핫한 동아인이 되겠습니다.



**민정현** / 동아일보  
재경국 회계팀 사원

- ① 2000년
- ② 동구마케팅고
- ③ 항상 어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배우는 자세로 나아가겠습니다. 회계팀의 막내로서 분위기 메이커를 담당하겠습니다.
- ④ 요즘 팝송에 관심이 생겨서 최근엔 Billie Eilish의 'Come out and play'를 즐겨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아일보에서 꿈을 펼쳐나갈 저에게 이 노래가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김경민** / 채널A  
경영전략실 사원

- ① 1995년
- ② 연세대 언더우드국제학
- ③ '꿈을 현실에 맞추지 말고, 현실을 꿈에 맞춰라' 제 인생의 모토대로 살고 싶습니다. 신입사원의 패기로 어떠한 역경이든 헤쳐 나가겠습니다!
- ④ 채식, 키토식, 비건 베이킹 등 건강한 음식을 맛있게 요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최근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제 요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신한술** / 채널A  
경영전략실 사원

- ① 1993년
- ② 성균관대 화학/신문방송학
- ③ 항상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디지털미디어를 통해 채널A의 가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더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④ 2019년 디즈니가 새로운 스트리밍 서비스를 선보인다 하여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어떤 동영상 플랫폼이 가장 플랫폼이 될까요? 기대가 됩니다.



**정현연** / 채널A  
경영전략실 사원

- ① 1995년
- ② 고려대 미디어학/국어국문학
- ③ 대학생 때는 대학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여러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는 동아미디어그룹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디지털미디어부에서 트렌드를 창조하겠습니다.
- ④ 디지털미디어로 10대들과 소통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서브컬처를 찾아내고 직접 경험함으로써 흐름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김형석** / 채널A  
콘텐츠사업본부 사원

- ① 1992년
- ② 한국외대 영어학/방송영상뉴미디어
- ③ 채널A의 향후 10년을 이끌어가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배우려는 태도, 적극적인 자세로 선배님들 동기들과 즐겁게 일하겠습니다.
- ④ 스타필드, 배에로 쇼핑몰과 같은 유통채널에 관심이 많습니다. 최신 유통 트렌드를 파악하여 채널A의 콘텐츠를 상품화하여 오프라인과 연계하고 싶습니다.



**유영재** / 채널A  
콘텐츠사업본부 사원

- ① 1991년
- ② 미시간주립대 광고학
- ③ 꿈꾸던 채널A 가족이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제 청춘, 긍정의 힘, 역량을 바쳐서 채널A에 보탬이 되는 콘텐츠 비즈니스의 핵심인이 되겠습니다!
- ④ 갑작스럽게 찾아온 추위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건강관리와 꾸준한 운동으로 몸짱이 되는 것이 저의 2019년 목표입니다.



**윤수경** / 채널A  
콘텐츠사업본부 사원

- ① 1995년
- ② 청화대 신문방송학
- ③ '콘텐츠를 통해 좋은 영향력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현실로 이루어낼 수 있는 자리에 입사하게 되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채널A의 예능, 드라마 등 킬러 콘텐츠를 해외에까지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 ④ 글쓰는 것을 좋아해 이렇저런 작품들을 감상하고 꼬적거리는 것이 여가활동인데, 일상의 패턴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 중입니다.



**이소라** / 채널A  
콘텐츠사업본부 사원

- ① 2000년
- ② 이화여대 방송영상학/경영학
- ③ 콘텐츠 덕후의 콘텐츠를 향한 외길 인생에 불빛이 켜졌습니다. 진정과 열정으로 보다 뜨겁고 환하게 빛내보겠습니다.
- ④ 발레와 서핑은 내 삶의 낙입니다. 지난 1년간 발에 멍이 들도록 발레를 하고, 서핑을 배우러 하와이로 혼자 떠났습니다. 더욱 가슴 뛰고 즐겁게 이들을 누릴 2019년이 기대됩니다!



**김서현** / 채널A  
경영지원본부 총무팀 사원

- ① 1996년
- ② 용인송담대 비서경영학
- ③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임원실에 오시는 분들 모두 기분이 좋아지는 미소로 응대할 것이며, 지금 신입의 마음가짐 잊지 않겠습니다.
- ④ 새로운 환경인 채널A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빠르게 그리고 잘 적응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또 해리포터 시리즈 등 판타지 영화에 빠져있습니다.